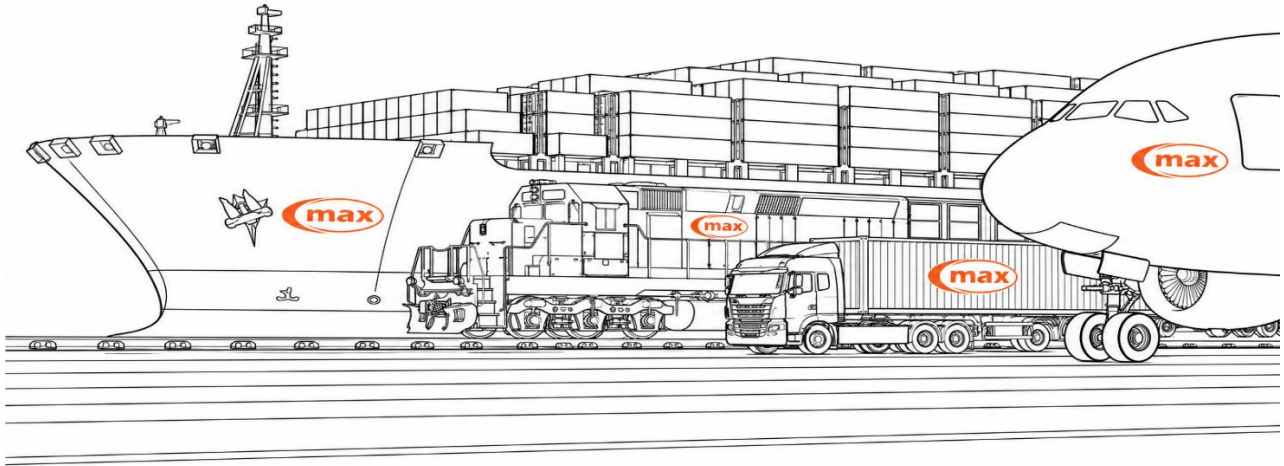




지점소식 📌

🌸 서울지점 / 부산지점

- 9 월 1 일부로 최성호 이사가 서울지점에 합류하여 아시아 및 중국·일본 노선을 담당, 오랜 콘솔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점의 영업역량 강화 기대
- 2026 년 10 월 3 일 (토) : 개천절
- 2026 년 10 월 5 일 (월) : 개천절 대체 공휴일
- 2026 년 10 월 9 일 (금) : 한글날

🌸 홍콩지점

- 2026 년 10 월 1 일 (목) : National Day
- 2026 년 10 월 19 일 (월) : The day following the Chinese Mid-Autumn Festival

🌸 타이페이 지점

- 2026 년 10 월 9 일 (금) : 국경절
- 2026 년 10 월 26 일 (월) : 광복절

🌸 도쿄지점

- 2026 년 10 월 12 일 (월) : 스포츠의 날

🌸 중국 전지점

- 2026 년 10 월 1 일 ~ 7 일 : 국경절 (10 월 10 일 대체 근무)

🌸 광저우지점

- 2026 하반기 칸톤 페어 개최

제 1 기 (10/15~10/19)	제 2 기(10/23~10/27)	제 3 기(10/31~11/04)
가정 전기 전자, 하드웨어, 에너지, 자전거, 자동차 부품, 자동차, 공구, 농업기계, 조명, 전기 설비 등	건축자재, 가구, 욕실용품, 세라믹, 시계, 선물용품, 원예용품, 가정 인테리어, 유리공예품, 도자기 등	사무용품, 의료보건 기기, 스포츠용품, 완구, 의류, 가방, 신발, 식품, 속옷, 개인 피부관리, 육아용품 등

🌸 방콕지점

- 2026 년 10 월 13 일 (화) : 푸미폰 국왕 서거기념일
- 2026 년 10 월 23 일 (금) : 짜라롱콘 대왕 기념일

🌸 애틀랜타지점

- 2026 년 10 월 12 일 (월) : Columbus Day

지역동향



🌸 서울지점

- 미국, 대캐나다 보복관세 추가 조치 발표 — 9/15, 9/29 순차적으로 발효 (정부조달 배제 조치 포함) 되어 북미향 물류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미국 관세·통관정책의 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화주의 공급망 대응의 중요성이 증대 : 주요 화물은 조기 Booking 권고
- 미국 9 월 소매판매 호조 지속 및 미국소매협회 (NRF, 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향만 물동 트래커상 피크시즌 연장 전망, 미주향 항공 수요 견조세 뒷받침
- 한·미·중·독·일 등 주요 제조국, 산업 AI 전환 정책 가속화, 반도체·자동차 등 중장기 제조 물동에 영향 전망(KOTRA)

❁ 홍콩지점

- 홍콩 실업률 3.8%로 소폭 상승, 2026년 6월~8월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8%를 기록하며 2026년 초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
- 홍콩 금융관리국(HKMA)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에 발맞춰, 페그제(Linked Exchange Rate System)에 따라 기준금리를 25bp(0.25%p) 인상한 4.25%로 인상
- 홍콩공항관리국은 8월 홍콩국제공항 (HKIA) 여객수가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한 586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

❁ 타이페이지점

- 대만 중앙은행,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48%로 상향 조정, AI·반도체 중심의 강한 경제성장이 주요 원인이나 대만 중국 관계·미국 통상정책·국제유가·산업 간 성장 격차 등 리스크도 상존

❁ 도쿄지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였으나 인사 과정에서 과거 비자금 스캔들과 연관되었던 의원들이 각료로 포함되면서 논란 재점화, 10월초 예정된 임시국회를 앞두고 야권에서는 '정치와 돈'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 고조
-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 억제와 엔화 약세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1.25%로 추가 인상, 이에 따라 장기간 계속되던 초저금리 시대가 마감되고 '금리가 있는 세계'로 본격 진입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6년 세계 성격차 (Gender Gap) 보고서에서 일본은 145개국 중 117위를 기록,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 및 주요 경제·정치 분야의 여성 참여율이 여전히 낮아 G7 국가 중 유일하게 100위권 밖에 랭크

❁ 방콕지점

- 우타파오 (파타야) 공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동부항공도시(EEC) 개발 가속화, 동부항공도시(EEC) 프로젝트는 돈무앙, 스완나폼과 우타파오 공항을 고속철도로 연결하고 방콕권 제3공항으로 육성하는 등 공항, MRO, 산업단지, 물류단지, 신도시를 통합 개발하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 프로젝트
- 태국에 우기가 지속되고 있고 북부·동북부 지역의 폭우 예보가 있어 해당 권역을 경유하는 내륙 운송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

🌸 페낭지점

- 말레이시아 통신부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등록 및 제품규제 강화방안 검토 예정, 전기전자제품의 안정성, 할랄표시 및 온라인 사기관련 민원에 대응해 재무부와 통신부에 즉각적인 규제방안 검토 지시하였고 말레이시아내 법인이나 주소가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등록요건과 전기전자제품의 SIRIM기준, 할랄표시 기준 및 세무규정 준수 등을 검토
- 8월 27일부터 휘발유, 경유 가격 5센트 인상,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제약과 서아시아, 러시아 정제시설 차질로 국제석유 제품 가격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은 9월 정례 통화정책회의(MPC)에서 기준금리 (OPR)를 2.75%로 동결, 이는 물가 상승 압박 완화와 안정적인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상환 부담 완화에 기여 기대

🌸 충칭지점

- 2026년 8월, 충칭의 월별 수출입규모가 812.6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29.7% 증가
-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해외 진출이 다각도로 확장되고, 양방향 경제무역 협력의 확대 영향으로 분석

🌸 상하이지점

- 최근 상하이시 투자촉진서비스센터와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 중소기업의 상하이 진출 및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상설 협력체 구성에 합의
- 상하이시는 지난 9월 1일 '아름다운 상하이' 건설 제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폐기물 재활용 확대, 친환경 교통·물류 전환, 신에너지 화물차 및 친환경 선박연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 국제공항협의회 (ACI)가 9월 7일 발표한 '공항 연결성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항 연결성 1위를 기록 (291개 도시에 정기 노선을 운항)

🌸 광저우지점

- 중국 해관총서 광둥분서에 따르면, 금년 1~8월간 광둥성 수출입 총액은 7조 5,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8월 단월 수출입 총액도 1조 500억 위안으로 3개월 연속 1조 위안을 상회하였다고 발표

- 1~8 월간 광둥성 수출과 수입총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6%, 39.5% 증가한 4 조 4,200 억 위안, 3 조 1,200 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반도체, 리튬전지, 전기자동차 수출이 각각 57.1%, 38.7%, 24.5% 증가
- 동 기간 주요 교역대상은 ASEAN 1 조 1,800 억 위안(16.2% ↑), 홍콩 1 조 1,500 억 위안 (47.4% ↑), EU 7,816 억 위안 (4.5% ↑), 미국 6,852 억 위안 (6.9% ↑), 대만 6,231 억 위안 (12.1% ↑) 순이며, 한국과의 교역도 전년 동기대비 48.2% 증가

❁ 선전지점

- 26 년 11 월 18 일부터 19 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 단계로 경제 및 사회 (소비진작, 도시재생, 민생 개선) 전반을 긴밀하게 연동하여 준비중

❁ 텐진지점

- 텐진항 주식회사의 2026 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화물 처리량은 2 억 3,400 만 톤으로 전년비 2.18% 증가했으며, 컨테이너 처리량은 1,121 만 TEU로 전년비 5.75% 증가
- 징진탕 (京津唐)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트럭 플라토닝을 시범 도입하여 천진항-베이징간 물류 비용을 절감을 시도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는 무인 배송차와 드론 등을 이용한 저고도 물류 (Low-Altitude Logistics) 시나리오를 추진
- 26 년 상반기 텐진의 수출입 총액 4,059 억 위안 (+2.4%), 수출 2,266 억 위안 (+9.2%)으로 역대 동기 최고 실적을 기록

❁ 애틀랜타지점

- 11 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비, 공공안전, 교통 등의 지역 현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전망
- 연준의 최근 금리 인상에 이어 10 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택시장 및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제조업, 자동차, 기술, 생명과학 분야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내 고용 및 산업 활동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물류동향

서울지점

- IATA 기준 7 월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CTK) 전년비 +3.9%, 아시아-북미 노선은 +9.2%로 최고 성장률을 보였으며 4 분기 성수기는 전통 소비재보다 AI 서버·반도체·첨단 전자장비 등 고부가가치 화물이 시장을 견인할 전망
- 미주향 : AI 서버, 반도체, 완성차 부품(전기차 관련), 배터리(ESS) 수요 견조
- 구주향 : 서유럽 화장품 수요 견조, 동유럽 전기차 부품·장비 수요 증가 추세에 있으나 노선별 스페이스 상황 및 운임에 편차 존재
- 아시아향 : 반도체 장비 수요 견조, 중국 국경절(10 월 초) 전 밀어내기 물량으로 일시 증가, 일본향은 하계 비수기 종료 후 점진적 회복 추세
- 파나마운하 흘수 제한 여파로 해상→항공 전환수요 일부 출하중이며,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주요 포워더 공급부족 전망

부산지점

- 국경절 연휴 영향으로 인한 선사들의 임시휴항 (BLANK SAILING) 증가, 10 월 초 중국 국경절 장기 연휴 동안 공장 가동이 정지되면서 해상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며 선사들은 공급 과잉과 운임 급락을 막기 위해 10 월 중·하순 주요 항로(미주/유럽)를 중심으로 임시휴항 (Blank Sailing)으로 선박스케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홍콩지점

-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s (HKIA)은 최근 열린 '일대일로 (Belt and Road) 정상회의'에서 항공 화물 연결성 및 항공 분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튀르키예 화물 항공사인 MNG 항공과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Navoi) 국제공항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타이페이 지점

- AI 서버와 반도체 수요를 중심으로 대만의 8 월 수출주문은 1,029.6 억 달러로 사상 처음 1,000 억 달러를 돌파 (전년비 71.4% 증가)
- 2026 년 상반기 China Airlines 의 화물 물동량은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8.1% 증가, EVA Air 는 역시 AI 관련 화물이 화물 매출의 최대 절반을 차지한다고 발표

❁ 도쿄지점

- 일본 국토교통성(MLIT) 승인 기준에 따라 ANA (전일본공수), JAL, NCA (일본화물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9 월과 10 월 적용 국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조정하고 있고,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항공유 가격 급등 완화 보조금' 조치가 병행 적용되어 실제 화주가 부담하는 유류할증료 구간(Tier)이 일부 낮추어져 반영
- 관동트럭협회가 9 월 하순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상 컨테이너 세미트레일러 운전자의 평균 연령이 52.8 세에 달하며 50 대 이상 비중이 전체의 70%를 돌파, 대형 견인 면허 필수, 항만 터미널 게이트 대기 시간 장기화, 성과급제 모순 등으로 인해 신규 젊은 인력 유입이 저조하여 수출입 물류 최종 구간 (육상 운송)의 병목 위험성을 지적

❁ 방콕지점

- CAAT 지침에 따라 2026 년 9 월 20 일부 규격초과 (OVERSIZED) 목재포장화물에 대한 개봉검사 (상단 또는 측면)가 시행되고 있어 통관 및 반출 리드타임이 증가되고 있음
- 램차방 항 혼잡 심화, 수입 터미널 혼잡도 극심, 연휴 전 중국발 화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현재 수입 터미널 혼잡도가 매우 높은 상황, 반출입 지연 가능성이 있음

❁ 페낭지점

- MBSB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 유가, 공공요금 및 물류비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업과 공급망 전반에 비용 압박 요인으로 작용, 다만 정부의 유류 보조금 정책 (RON95 및 디젤 지원)과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 (STR-SARA) 덕분에 소매 유통 및 소비 심리는 비교적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물류 및 에너지 비용의 장기화 여부가 물류 및 유통 부문의 주요 리스크라고 지적
- 싱가포르와 조호바루 (JB) 간의 육상 화물 운송은 1km 채 안 되는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양국 세관의 엄격한 통관을 거치며 싱가포르 출구 허가 (TradeNet, OUT-DRT)와 말레이시아 수입 신고 (uCustoms 시스템을 통한 K1 신고) 간의 품목 분류 (HS Code) 및 가격 정보 불일치가 통관 지연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철저한 서류 사전 검증이 강조

❁ 충칭지점

-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의 9 월 국제 (지역) 화물물동량 2 만 3 천 톤을 돌파, 전년비 34.1% 증가하여 증가율 측면에서 전국 주요 항공화물 공항중 상위 2 위를 차지
- 9 월 충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브라질 상파울루로 향하는 두 개의 전용 화물 항로가 새로 개통, 9 월말 기준 충칭 장베이 공항의 실제 운항 중인 국제 및 지역 화물 항로는 30 개에 달하며 주간 운항편은 97 편

- 9월 주요 항공 수출입 화물은 노트북, 반도체,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등 전자정보 제품이 항공 수출 화물 가치의 60.1%를 차지하였고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 부품, 바이오의약 시약, 고급 정밀 기기의 항공 수출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5%, 43.2%, 35.1% 증가
- 평륙운하(平陆运河) 2026년 9월 16일 정식 개통되면서 내륙에서 바다까지 운송거리가 약 560km 단축되어 종합 물류 비용이 18%~30% 감소하면서 충청소재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



평륙운하(平陆运河, Pinglu Canal)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횡주시(横州市)와 진저우항(钦州港)을 연결하는 인공 운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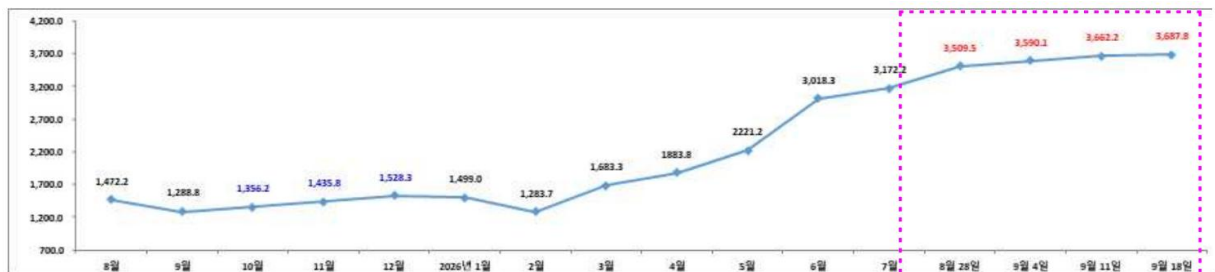
개요

- 총연장: 약 **134km**
- 수심: 약 **6.5m**
- 통항 선박: **5,000톤급 내항선**
- 연결 구간: 서강(西江) 수계 ↔ 북부만(Beibu Gulf)
- 2022년 착공, 2026년 개통

🌟 상하이지점

【해운동향】

- 9월 18일 기준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종합운임지수는 3,687.83포인트로 전주 대비 0.7% 상승



- 상하이·닝보 등 화동 지역은 선복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통상적인 국경절 연휴 전 선복 타이트 현상에 더해 올해는 연휴 이후에도 일시적인 선복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상하이·닝보 등 화동지역은 8월 초 연이은 태풍과 물동량 증가로 항만 적체 및 운임 상승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선사들의 기항 취소도 발생, 이러한 상황은 국경절 연휴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상하이 양산항은 세계 최초의 외해 섬 기반 역외형 컨테이너 항만으로, 상하이항이 16년 연속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북쪽으로 확장하는 신규 스마트항만 프로젝트가 진행중으로 완공 시 육상 운송 부담 완화 및 친환경, 저탄소 물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항공동향】

- 상하이 푸둥공항은 2026년 상반기 수출입 항공화물 203.51만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76%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 또한 신규 국제 화물전용기 노선 7개 개설 및 3개 노선 증편으로 항공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스마트 화물터미널 도입 등을 통해 통관 및 화물 처리 효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유럽 노선은 9월 이후 전통적인 성수기에 진입했으나 EU 저가 소포 면세정책 변경 이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량이 감소하면서 성수기 효과는 예년보다 약한 상황, 이에 항공사들이 시장 수요에 맞춰 공급을 조정하면서 운임은 하락세는 소폭 반등하는 양상
- 미주 노선은 AI 관련 산업 및 고부가가치 전자제품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애플 신제품 및 AI 서버 관련 화물 출하가 증가하며 수요를 견인, 국경절 전 집중 출하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항공 공급은 비교적 충분한 수준으로 대규모 공급 부족 가능성은 없음
- 중국-아시아태평양·중동·인도 노선은 운임 및 공급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추절·국경절 연휴전 밀어내기 수요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 수급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광저우지점

- 북미 서부행 일반화물 및 AI 프로젝트 화물 수요 회복중이나 전자상거래 수요는 세관검사 영향으로 출하 제한적이며 중부는 Apple 신제품 중심 수요 확대에 의한 공급 부족 및 시장 운임 상승세, 동부는 파나마 운하 갈수기 영향으로 해운 물량이 항공으로 전환되는 Modal Shift 수요 발생중
- 유럽은 EU의 소액화물 면세제도(de minimis) 폐지 이후 아시아발 유럽행 전자상거래 항공화물 시장이 뚜렷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 특히 유럽행 전자상거래 물동의 의존도가 높은 홍콩발 항공화물은 8월 기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였으나 8월 전체 물동량은 전월 대비 약 7% 감소에 그쳤고, 8월 마지막 주에는 전주 대비 3%, 저점으로 평가되는 33주차 대비 6% 증가하며 감소세가 저점을 통과하는 조짐을 보임

- 중국이 국제 항공화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항공화물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2026년 1~8월 동안 총 115개의 국제 항공화물 노선을 신규 개설했으며, 이에 따라 주당 왕복 운항 횟수도 292회 증가, 신규 노선은 아시아 57개, 유럽 41개, 북미 13개, 아프리카 3개, 남미 1개로 구성되어 아시아와 유럽 노선 확대가 두드러짐
- 7월 글로벌 컨테이너선 스케줄 정시성이 56.4%를 기록하며 2025년 2월 얼라이언스 재편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 평균 지연일수도 6일 이상으로 확대, 스케줄 차질에 따른 실질 공급 축소 규모는 글로벌 선대의 6.6% 수준인 약 230만 TEU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이는 팬데믹 이전 공급 축소 수준인 2.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최근 연이은 태풍 영향으로 상하이·닝보항 등 아시아 주요 항만의 적체가 심화된 데 따른 결과, 정상화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태풍 영향에 따른 중국 주요 항만의 적체는 9월 중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경절 이전 밀어내기 선적 수요와 연휴 기간 중 항만 운영 축소가 맞물리면서 스케줄 지연 현상이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선전지점

- 8월 선전공항 화물 처리량 16.3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 국제선은 7.4만 톤으로 12.9% 감소
- 26년 1~8월 선전항 외국무역 컨테이너 처리량 2,334만 TEU로 역대 최고치 (전년비 5.6% 증가), 8월 엔텐항은 160만 TEU를 돌파하며 개항 이래 월간 최고 기록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선검사 후 적재" 모드가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통관시간 50% 이상 단축, 기업 비용 30% 이상 절감 효과를 보임

✿ 텐진지점

【항공동향】

- 텐진공항의 화물기 운송량은 26년 상반기 3.2 만톤으로 전년비 14.2% 증가, 동기간 화물 전세기 운항편수는 58.8%, 화물량은 190.1% 증가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월평균 물량은 연초 20 톤에서 110 톤 이상으로 늘었고, 향후 월 200 톤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

【해운동향】

- 한국노선 참고 운임 (8~9 월) : 부산 20GP 145~410, 40HQ 145~630USD, 인천 20GP 480~595, 40HQ 820~970USD, 광양 20GP 360~440, 40HQ 560~660USD
- 10월 1일부터 CMA CGM이 극동·인도→미서부 4,000USD/40ft, 인도→미동부 10,000

USD/40ft의 PSS 부과, 머스크는 아시아-유럽 노선의 PSS를 취소하여 완만한 가격 하락이 예상

- 상하이·닝보 정박 대기가 최대 12일까지 증가하였고, 파나마 운하의 10월 1일 흘수 제한 조치는 연기되어 14.63m를 유지

🌸 애틀랜타지점

- 10월 성수기 진입으로 미주발 항공화물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Fuel Surcharge 인상 및 Capacity 제약에 따른 운임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
- 해운 역시 10월 성수기 물동량 증가로 Savannah Port 및 Atlanta 등 주요 물류 Hub의 터미널 혼잡과 내륙 운송 Capacity 제약이 예상되어 사전 Capacity 확보 및 운송 일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항공사/선사 스케줄 변동사항 📌

🌸 서울지점

- 대한항공 : 인천 화물터미널 리노베이션에 따라 중량·대형화물 반입 터미널 T2→T1으로 변경, 미주항 ACAS·AMS 신고 정확성 및 위험물·SEA&AIR 화물 사전검색·보안절차 강화로 반입 전 서류·품목 확인 필요
- 각 항공사 유류할증료(FSC) 갱신 (9/16~10/15 적용) : KE·QR·AY·EK·EY·AC·TK 1,450, CV·C8 2,320, AF·KL·MP 2,090, LH·LX 2,020 등
- 캐세이퍼시픽 : 뽀뽀 (BOM) 화물기 운항이 나비뽀뽀 (NMI)로 임시 이전 (2026.8.3~2027.5.31, 월·수·금 운항)
- 중동 T/S (환적) 화물, 미-이란 관계 영향으로 일부 노선 진행 제한 지속, 예약전 사전 확인 필요
- 업계 전반적으로 e-AWB·API 기반 Booking 등 Paperless·Digital Process 확대, AI 기반 자동화 및 실시간 Visibility 강화 추세 (9월 Korea Air Cargo Day 주요 의제)

🌸 홍콩지점

- OOCL announces new South China Laem Chabang service (CHL7)
 - Southbound : Qingdao – Shanghai – Shekou – Melbourne – Sydney
 - Northbound : Melbourne – Sydney – Qingdao – Shanghai – Shekou

- OOCL Announces New Canadian Gateway Express 3 (GEX3)
- OOCL 서부 지중해와 캐나다를 직접 연결하는 신규서비스 출시 (주간1회), 새로운 서비스는 Westbound는 2026년 10월 13일부터 살레르노에서, Eastbound는 2026년 11월 9일부터 몬트리올에서 운행을 시작
- Westbound (지중해→캐나다) : Tangier-Salerno – Livorno – Genoa - Fos Sur Mer – Sagunto – Algeciras - Montreal
- Eastbound (캐나다→지중해) : Montreal – Tangier - Salerno - Livorno - Genoa - Fos Sur Mer - Sagunto – Algeciras

✿ 타이페이지점

- OZ/CI/BR : 10월 1일부로 한국행 FSC를 기준 현 NTD20 (USD0.62/kg)에서 NTD24 (USD0.76/kg)로 인상 예정, KE는 NTD27/kg (USD0.84/kg)

✿ 방콕지점

- OZ742 (아시아나항공, BKK→ICN) 기종 변경 (A380→A330, 2026.10.20부)

✿ 텐진지점

- MSC가 한국-멕시코 주간 순환 서비스(5,000TEU 7척)를 신설하여 도착일 기준 30일에서 약 18일로 단축, 연간 6만 TEU 증대 기대
- 텐진 출발 화물기가 기존 주 15편에서 9월부터 주 18편으로 확대되어 WIDY BODY 위주로 주간 화물 공급은 2,000톤 이상으로 증가
- EU의 150유로 이하 소포 면세폐지로 중국 국적사의 중국출발 유럽 노선 화물기 공급은 약 19% 축소

✿ 애틀랜타지점

- 10월 1일부 주요 항공사 Fuel Surcharge 인상
- KE : USD1.40/kg→USD1.50/kg
- KJ : JFK/AISA USD1.40/kg→USD1.50/kg, JFK/EUROPE USD0.80/kg→USD0.90/kg

기타 공지사항



서울지점

- 파나마운하 흘수 제한 관련 상황 지속 중이며, 향후 완화 여부에 따른 운송전환 추이 지속 모니터링 필요
- 미주행 화물은 위험물 포함 여부 및 관련 서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통관·운송 지연 예방 필요

선전지점

- 2026 년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선사별로 공선 (blank sailing) 및 결항이 예정되어 있어 예정된 운송 시간보다 7~14 일 추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일이 중요한 화물은 사전에 여유를 둘 필요가 있음
- 연휴 전후 6 주간은 평소 1~2 주에서 3~4 주 전 예약이 필요하며, 인기 항로는 최소 4 주 전 예약을 권장